

금월도(錦月島)

기획안



imt v

1. 작품개요

제 목	금월도(錦月島)
장 르	오컬트 호러
형 식	30분 × 6부작
극 본	조아라 (넷플릭스 ‘종말의 바보’ 기획작가)
연 출	미정
제 작 사	아이엠티브이 (KBS ‘개소리’, 넷플릭스 ‘종말의 바보’, TVN ‘패밀리’)
로그라인	실종된 엄마를 찾으러 600년간 단절된 육혈귀(식인)들의 섬, 금월도(錦月島)에 발을 디딘 ‘수리영’이 ‘촌주’(공동체 리더)를 몰아내고 인간세상을 휘젓고 싶어하는 ‘산들’의 계락을 물리치고 자신의 운명에 맞서는 한국형 오컬트 액션활극.
키 워 드	#육혈귀 #한국형 뱀파이어 #만월제(Full Moon) #반인반혈 #판타지 호러 #K-오컬트 #액션 #로맨스

2. 기획의도

〈금월도〉는 한국 역사 속 식인 기록과 전염병, 기근의 역사에 상상력을 더해 ‘육혈귀’라는 한국형 뱀파이어를 새로운 종족으로 탄생시킨 우리 고유의 **한국형 오컬트 호러 시리즈물**이다.

〈선조실록〉, 〈고려사〉 등의 실제 기록에서 출발한 “식인과 금기의 역사”를 현대적 판타지 세계관으로 확장하여, 인간의 탐욕과 유전되는 폭력성을 깊숙히 들여다본다.

〈금월도〉는 단순한 인간과 다른 종(異種)에 관한 서사가 아니다.

- ‘육혈귀’와 ‘반인반혈’은 인간세계에서 또 다른 ‘괴물’인가?
 - 그렇다면 ‘괴물’은 태어나는가, 아니면 길러지는가?
 - 본능과 윤리 사이에서 ‘주인공’은 무엇을 선택할까?
 - 집단의 규율과 개인의 자유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 라는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 오컬트 스릴러**다.

특히 한국형 뱀파이어 ‘육혈귀’라는 설정을 통해 서구 뱀파이어 문법이 아닌, ‘모계 혈통’, ‘만월제 의식’, ‘석창포·녹각 등 한방적 요소’, ‘당산나무·섬 공동체 문화’ 등 한국적 정서와 토속신앙 그리고 액션/로맨스의 판타지 요소를 결합한 K-오컬트 장르의 새로운 유니버스를 만들고자 한다.

3. 작의

인간은 과연 충동적인 본능과 탐욕을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의 악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 그 악을 벌하는 존재(형벌의 신)의 역사도 오래됐다’
는 설정에서 이 작품은 출발한다.

‘수리영’은 실종된 엄마를 찾기 위해 지도에도 없는 무인도에 들어가,
‘만월제’라는 기이한 원시 축제를 목도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금월도’에서 펼쳐지는 기묘한 사건들,
피로 이어져 내려온 존재의 비밀, 그리고 점점 깨어나는 본능!
주어진 운명에 따라 ‘괴물’이 될 것인가,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육혈귀’의 유전과 숙명 속에서 자신의 운명에 맞서는 ‘수리영’을 통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세상을 부둥켜안는 처절한 용기를 보게 될 것이다.

어쩌면 ‘괴물’보다 무서운 건
죄책감 없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인간의 무리가 아닐까?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가 필요해질 만큼
나약해진 인간의 본성의 이면에는 그만큼 누적된 인간의 탐욕과 침묵이
현대 사회에 전반에 퍼져있는 더 큰 문제가 아닐까하는 경각심을
스토리에 담아 보고자 했다.

4. 작품 컨셉

1) ‘역사적 사실’에서 착안한 세계관



“서울 밖의 사람들이 인육과 사람의 간담을
창질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기 때문에
흉악한 무리가 어린이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괴함은 물론이고
비록 장성한 남녀라도 혼자 모두 배를 가르고 쓸개를
꺼내었다.”

<선조실록 10권, 선조 9년 6월 26일>

‘이보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고생하던 중
꿈에 어떤 종이 말하길 산 사람의 뼈를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하자 이보가 즉시 놀라서 깨어
손가락을 베어 약을 만들어 드리니
아버지의 병이 즉시 나았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



고려시대, 1231년부터 1270년까지 몽골 침입이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식량난이 심각
해진 상황에서의 식인 기록이 <고려사>에 쓰여 있는데, **“사람들이 굶어 죽었으며,
시체를 먹었다”, “길거리에 버려진 시신이 많아, 이를 몰래 가져가 먹는 사례도 있었다”**
는 충격적인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심각한 기근이 계속되고 전염병
이 퍼지자, 피폐해진 유교적 가치관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러웠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가뭄과 전쟁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 식인이 발생했던 조선시대, 식인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듯 조정은 이를 야만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현상금을 걸어 식인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식인이 자행되던 시기, 조정이 이들을 단속해 처벌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착안한다. 식인을 자행하던 이들이 단속을 피해 외진 곳에 모여 살며 번식했고, 후대로 갈수록 유전자가 변이되어 사람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육혈귀’가 탄생했다면 어떨까? 그들이 모여 사는 폐쇄된 섬, 금월도를 배경으로 인간의 피를 둘러싼 금기와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친다.

2) 육혈귀들이 사는 곳, ‘금월도’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영토 안에는 약 3,358개의 섬이 존재하는데, 이중 유인도는 약 482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2,876곳이 무인도라고 한다. 만약 한반도 어딘가에 인육을 먹고 사는 종족이 살아있다면, 국내 수천 개의 무인도 중 하나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을까?



이 드라마의 ‘금월도’는 행정구역상으로는 바다로 특수한 경로로만 진입 가능한 가상의 섬이다. 과거 전쟁과 기아로 인해 식인이 자행되던 시기, 전염병 감염자의 피와 살을 먹은 야생인들에 의해 섬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유전자 변형이 시작됐고, 어느때 부턴가 육혈귀성은 단순 문화가 아니라 ‘체질’, ‘혈통’으로 굳어졌다.

3) 한국형 뱀파이어 ‘육혈귀’ / 드라마적 설정

[특징]

- ‘육혈귀’는 본능적으로 인혈을 탐하며, 살아있는 피 냄새에 거칠게 반응한다.
- ‘금월도’의 ‘육혈귀’들은 평소 석창포와 사슴뿔을 넣고 끓인 물로 충동을 억제하며, 한 달에 한번 보름에 동물의 생피와 생고기를 배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 모계혈통인 ‘촌주’(리더겸 정신적 지주)철저한 지휘 관리를 받는다.

[규모]

- ‘금월도’에는 약 20호에 50여명의 ‘육혈귀’들이 살고 있다.
- 청년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반면 여자는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약점]

- 인간의 피를 많이 마셔 눈이 붉게 변색된 ‘육혈귀’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흰 사슴의 뿔로 숨통을 단번에 찌르는 것이다.

※ ‘반인반혈’이란?

- ‘육혈귀’와 인간의 피가 섞인 ‘반인반혈’은 성인이 되어서야 본능이 발현된다.
- ‘순혈파’인 ‘육혈귀’와 달리 ‘반인반혈’은 극소수며, ‘반인반혈’ 여자 중에서 촌주가 배출 된다

4. 셀링포인트

1)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한국형 뱀파이어 '육혈귀'

기존 뱀파이어물이 서양의 저주와 불멸, 귀족적 낭만에 기반했다면, 금월도의 '육혈귀'는 조선시대 식인 기록에 보여준 완전히 차별화된 세계관에서 출발한다.

한국만의 토속적이고 신선한 문화적 충격을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좀비 <킹덤>, 무속애니 <케데헌>처럼 강력한 팬덤을 형성할 것이다.

2) '금월도'라는 고립된 섬이 주는 압도적 긴장감

지도에도 없는 '금월도'라는 섬에 들어서는 순간, 시청자들은 기존의 상식과 제도는 무력화되고 '육혈귀'의 생존규칙이 지배하는 세상을 마주하게 된다.

현실(고립, 의심)과 비현실(표식, 제사) 사이에서 흔들리는 주인공의 공포감은 '무인도'라는 설정으로 증폭된다. 대한민국 영토 안 2,876개 무인도 어딘가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현실감을 부여하며, <오징어게임>의 폐쇄된 게임장처럼 공간 자체가 갈등의 상징이 되는 한국 콘텐츠의 강점을 계승한다.

3) 만월제로 치닫는 오컬트적 몰입감

6개의 에피소드 안에서 만월제를 향해 치닫는 매 회 긴장감을 극대화시킨다.

수리영이 진실에 다가갈수록 깨어나는 본능과 싸워야 하는 이중적 갈등 구조는 시청자들에게 손에 땀을 쥐게하는 몰입감을 선사하며, 회차별 반전과 클리프행어 배치로 완주율을 높인다.

4) 미스터리한 주인공의 내적 서사

몸에 흐르는 '육혈귀'를 저주하는 촌주, 규칙을 허물고 인간을 탐하는 '산들', 나이를 알수 없는 '무당'과 비밀을 간직한 '인우'까지 섬에 사는 모든 인물은 각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인다. 환각이 만들어내는 불길한 예고, 사라진 시체 대신 표식이 반복되는 혼란은 급기야 주인공의 '육혈귀'로서의 본능을 발현시킨다. '인간으로 회귀할 것인가, 육혈귀로 남을 것인가'

주인공의 내적갈등은 단순한 활극을 넘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무엇으로 인간임을 증명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5) OTT 시대, 시청자의 소비패턴에 맞춘 포맷

빠른 전개와 회차별 반전 배치로 몰입도를 극대화하며, MZ세대 감각에 맞췄다. 쇼츠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30분이라는 러닝타임은 완주율을 높이고 글로벌 OTT 플랫폼 알고리즘에도 적합할 것이다

5. 등장인물

강수리영(여, 21세) _ 강민숙의 딸, 대학생

“실종된 엄마를 찾아서”

항구 소도시에서 사는 평범한 대학생, 살해된 엄마를 목격하지만 막상 경찰이 왔을 때 사라져버린 시신. 엄마를 고리로 자신을 유인하는 금월도를 찾아간다. 홀로 진실을 추적하는 인물.

엄마의 흔적을 파헤치며 금월도의 비밀과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서 깨달아 가던 수리영은, 산들이 외지인을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가 엄마를 죽인 범인임을 확신한다. 만월이 가까워질수록 흡혈귀의 본능이 되살아나 괴로워하는 수리영. 그녀는 운명을 거부하고 섬을 탈출하기 위해, 자신을 재물로 바치려는 산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다.



강영란(여, 68세) _ 금월도 촌주, 수리영 할머니



“규칙을 어기는자 가혹한 형벌이 따를 것이니..”

섬의 지도자이자 엄격한 규칙 수호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손녀 수리영 때문에 과거가 소환된다. 수리영의 존재가 곧 촌주의 ‘규칙위반’의 증거로 항상 차갑게 손녀를 밀어낸다. 어떻게든 수리영을 물으로 돌려보내려 하지만 이번에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걸 안다.

바위 같은 단단한 운명에 한낱 계란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끝까지 바위를 내려친다. 이번에는 부디 손녀 수리영을 지킬 수 있길 바라며.

산들(남, 30세) _ 순혈파 육혈귀 청년 리더



“약육강식, 육혈귀는 인간을 지배해야만 한다.”

인간을 죽이는 데 있어서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책감이 없다. 민숙을 죽이고, 표식을 남겨 수리영을 섬으로 유인한 육혈귀. 수리영을 존재를 알려 만월제 때 촌주를 제거하고 자신이 금월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다.

그 목표에 방해가 되자 친부(황씨)도 가차 없이 도륙하는

잔인한 인물. 인간과의 공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육혈귀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인간을 지배하고, 언제든 살육의 본능을 채우며 인간의 피를 마시고 싶다.

그렇기에 산들은 금월도를 지배하는 것을 넘어, 섬 밖으로 나가 인간들의 피를 마시고 지금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려 한다.

인우(남, 24세) - 금월도의 반인반혈

“여기 더 있지 말고 만월이 되기 전에 떠나.”

외지인 여성사이에서 태어난 섬의 유일한 반인반혈인.

촌주 영란의 허락 하에 황 씨가 금월도에 데려와 키웠고 성인되면서 황 씨와 함께 물으로 나가 섬의 물자를 조달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순혈 파 젊은 육혈귀들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

스스로도 마을에 섞이려고 하지 않는 경계인. 인간의 피가 섞였다는 점에서 수리영에 느끼는 동질감이 연심으로 바뀌면서 물으로 돌아갈 것을 강권하지만 산들에게 복수하고 자하는 수리영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

결국,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힘을 흡수시켜 산들과 대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당 신 씨(여, 나이 미상) - 금월도의 정신적 지주



오랜 시간 금월도에서 살아온 흰 백발의 무당.

언제부터 이곳에 존재했는지, 언제부터 무당으로 불려 왔는지 모른다. 다만 신씨 집안 대대로 촌주를 보필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민숙이 ‘만월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제일 먼저 알았지만, 선불리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사슴의 뿔만이 육혈귀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

기에 민숙에게 흰 사슴의 뿔을 건넨다.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보기로 했다.

강민숙(여, 40세, 사망) - 강영란의 딸. 수리영의 모

남시꾼 강훈과 사랑에 빠져 수리영을 임신하게 됐다.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민숙은 인간과의 사랑을 금하는 금월도를 떠나 물으로 나가 숨어 살게 된다. 반인반혈인 수리영에게 육혈귀의 본성이 발현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석창포 달인 물을 먹이며 채식주의자로 키운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일체 탐구하며 살았지만 어느 날 산들에 의해 살해당한다.

황 씨(남, 65세) - 촌주의 충성파

섬의 총무이자 촌주가 믿는 유일한 인물. 어릴때부터 촌주와 남매처럼 자라왔다.

도시로 나가 생피를 탐하며 사사건건 촌주와 대척점에서 서서 반항하는 산들이 못마땅하다.

친아들인 산들대신 인우를 아들처럼 생각하며 의지하고 있다. 20년전 촌주의 부탁으로 인간의 아이를 임신한 민숙(수리영 엄마)을 은밀하게 물으로 빼돌린 사람이 바로 이 황씨다.

신이(여, 38세) - 영란의 수양딸

영란의 수양딸. 육혈귀였던 아버지가 피를 향한 갈망으로 인해 신이를 헤치려 했고,

이를 발견한 민숙이 도와주면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성대를 다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말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영란의 수양딸이 된 이후로 말 못하는 병어리처럼 숨죽여 살았다. 수리영이 금월도에 나타나기 전까진... 자신을 살려 준 민숙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이는 어떻게든 수리영을 도와주려 한다.

전혜수(여, 43세) _ 형사

포구 외진 곳에 쓰러져있던 민숙을 구해준 인물. 항구소도시 경찰로 민숙의 실종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이모라 부르며 자신을 따르던 수리영 마저 사라지자 몹시 걱정한다. 바다에서 떠내려 온 민숙의 시신 감정 결과 인간의 혈액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충격에 빠져 수리영을 찾아 나선다.

6. 전체 줄거리

서해와 인접해있는 조용한 항구도시. 이곳에서 최근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잇달아 발생한다. 마치 동물이 물어뜯어 먹은 것처럼 보이는 잔혹한 사체에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는 경찰로 인해 횡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수리영은 옥탑방 집에서 참혹하게 죽은 엄마의 시신을 목도한다. 살점이 뜯겨나간 얼굴과 목. 범인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붉은 원’ 표식까지. 하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땐 시신도 핏자국도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그날 이후 사라진 엄마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할수록 수리영에게는 소름끼치는 환영이 반복된다. 엄마의 실종지점은 항구로부터 70km 떨어진 망망대해. 수리영은 범인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어릴 적 엄마의 사진 한 장과 지도를 들고 실종된 엄마를 찾기 위해 소형어선에 몸을 싣는다.

좌표 상으로는 바다지만 수리영 앞에 펼쳐진 곳은 황금빛(해질녘)을 물든 섬, 금월도다. 사진 속의 장소(식당)를 찾아갔지만 수리영은 야멸찬 냉대를 받는다. 엄마를 모를 뿐 아니라 이곳은 외지인이 살수 없는 섬이니 당장 떠나라는 경고였다. 엄마와 관련된 흔적을 찾고 싶었던 수리영은 중천에 뜬 달빛아래에서 벌어지는 처벌 의식을 목격하게 되고, 영란(촌주)의 말이 모두 거짓이며, 섬의 누군가가 규칙 위반을 이유로 엄마를 죽였을 거라고 확신하게 된다. 자욱한 안개와 짙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금월도. 지도에 없는 섬에서 원시공동체처럼 달을 숭배하며 사는 이들은 대체 누구인가?

왜 이들에게 엄마 ‘강민숙’은 금기가 된 것일까? 피 냄새에 익숙해질수록 마치 무병을 앓은 것처럼 수리영은 환영과 환청에 시달린다. 스스로 외지인을 자처하며 마을에 섞이길 거부하는 ‘인우’를 통해 조금씩 의문을 풀어가던 즈음, 수리영은 외파로 떨어진 도축장 안에서 엄마를 죽인 범인의 결정적 단서를 찾아낸다. 범인은 젊은 무리의 리더 ‘산들’이었다. 산들은 촌주인 영란이 ‘그분(형벌의 신)’이 내린 규칙을 핑계삼아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굶주리게 만든 장본인이라 여기고 대척점에 서있었다. 물으로 나가 자유롭게 살육하며 생피와 생고기를 탐하고 싶어, 촌주의 아킬레스 건인 민숙(물에 사는 촌주의 딸)을 죽이고, 배신의 증거로 수리영을 섬으로 유인한 것이다.

이제 수리영은 선택해야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촌주가 될 것인가

가? 같은 반인반혈인 인우와 함께 섬을 떠날 것인가?

수리영은 떠나기 전에 ‘산들’에 대한 복수부터 해야한다고 결심한다. 이대로 엄마를 잊어버릴 수 없지 않을까. 수리영은 그녀에게 닥쳐올 운명을 예측하지 못한 채, 무당의 조연대로 산들의 목숨을 단번에 끊을 수 있는 녹각목걸이를 손에 넣고 만월제(10년마다 벌어지는 신을 영접하는 축제)로 향한다. 인혈을 탐하는 육혈귀들의 광란의 밤, 무당과 영란을 죽음에 내몰며 산들 패거리들의 반란이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그분’의 힘이 수리영에게 전이되면서 산들을 압도하고, 날카로워진 녹각은 산들의 심장에 꽂힌다.

다시 항구도시 옥탑방. 화사하게 외출복을 갈아입은 수리영, 거울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눈동자를 자세히 본다. 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눈동자를...

7. 부별 시놉시스

1부 실종

서해와 인접한 항구 소도시. 바다와 섬들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옥탑 방에서 살고 있는 수리영(21세 대학생)과 민숙(엄마)은 잔잔한 바다처럼 일상이 평범하고 순조로웠다. 석창포를 달인 시큼한 물을 먹이려는 실랑이만 빼면. 불행은 예고없이 찾아들었다. 잇단 살인사건으로 소도시에 횡행한 소문이 돌고 있는 때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찾아간 일터(마트)에 엄마가 없었다. 길이 엇갈렸나 싶어 서둘러 집에 돌아온 순간, 역겨운 냄새와 반쯤 열린 현관문에 숨이 턱 막힌 수리영, 누군가 다녀간 것으로 보이는 식탁 위의 찻 잔과 피묻은 발자국들. 커튼 뒤에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는 엄마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뭉개진 얼굴과 살점이 뜯겨나간 어깨와 쇠골. 범인은 수리영에게 보란 듯 피로 쓴 듯 ‘붉은 원’의 표식을 남겼다.

“어, 엄마가 죽어있어요..”

하지만 해수(형사)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 안은 지나치리만치 깨끗하게 정돈돼 있고 시신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누구도 수리영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 엄마 민숙은 결국 단순 실종으로 처리됐다. 이후로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핸드폰 전원은 꺼진 상태. 헛것을 봤다고 생각하기엔 시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다음날 아침, 수리영은 엄마가 누군가와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마트 직원을 찾아가 CCTV를 확인했지만 화면이 어두운데다 교묘하게 가려져 식별이 어려웠다.

며칠 후 실종신고처리를 위해 찾아간 경찰서 해수의 책상에서 최근 일어난 사건의 사체사진을 보게 된 수리영. 엄마의 상처와 너무나 흡사한 그 끔찍한 흔적들...

마침 그때, 모니터에 엄마 핸드폰 위치추적 결과가 주르륵 뜬다.

해상 좌표, 123. 456. 북동쪽 70km. 바다에... 엄마가...?

세찬 소나기가 쏟아지는 밤, 혼자서라도 엄마를 찾겠다고 결심한 수리영. 옥탑방에 들어선 순간 또다시 역한 냄새를 맡는다. 집안은 누군가 해집고 간 흔적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벽에 피묻은 사진 한 장(이를 모름 섬에서 찍은 어릴적 엄마사진)과 함께 ‘붉은 원’

표식. 분명 범인이 남긴 흔적이다. 엄마를 찾고 싶으면 여기로 오라는 것 같은. 결국 수리영은 엄마를 찾기 위해 지도에도 기록에도 없는 금월도라는 금기의 섬으로 향한다. 안개가 자욱한 바다. '금월'이라는 사진속의 글씨를 보는 순간 충격에 빠져 뱃머리를 돌리려는 선장(인우.24세)과 한 차례 실랑이가 벌어지고.

이어서 조타실 안에 그려진 수많은 '붉은 원' 표식을 발견하며 의식이 혼미해지는 수리영. “다, 당신 누구야...?!” 황금빛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짙은 안개가 배를 감싼다.

2부 존주

망망대해. 배안 조타실에서 눈을 뜬 수리영. 깨질 듯한 두통으로 머리를 감싸 진 순간, 펄떡 젊은 뱃사공(인우)과 실랑이 벌인 것이 떠오른다. 둘러보니 의식을 혼미하게 만든 '붉은 원'은 또 사라졌다. 다만 지도(마지막 엄마의 실종위치좌표가 찍힌)와 어릴적 엄마 사진은 다행히 손에 쥐어져 있었다. '허름한 식당 앞에 어린여자애 둘이 앉아있고 교회지붕위의 십자가처럼 식당위에 '원'이 꽃혀있는 그 사진. 분명 인우는 사진을 보더니 놀라 뱃머리를 돌리려 했다. 급하게 갑판으로 나가보지만 짙은 안개에 싸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안개가 걷히고 드러난 황금빛으로 물든 섬 금월도.

이럴 수가...! 지도상에는 그저 바다였는데.

섬 중턱에 자리잡은 허름한 식당. 흑백 사진대로 기둥에는 '금월'이라는 빛바랜 글자가 보였다. '이 식당이 맞는데... 이 피비린내는 뭐지?' 범상치 않은 눈빛의 식당주인 -영란(68세 촌주)은 엄마를 찾으러 왔으며 '강민숙'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시선이 흔들렸다. 엄마를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영란은 날 밝는 대로 물으로 돌아가라며 차갑게 내친다. 그날 밤, 악몽에서 깬 수리영은 마당 쪽문 너머 움막에서 누군가 나누는 애길 엿 듣게 된다. "언니가 애를 낳고 최근까지 산 거 네요." "설마 죽은 거 아니겠죠?" 그들은 엄마 '강민숙'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왜 모른 척 한 것일까. 이튿날 새벽, 수리영은 식당에 딸린 안채의 방을 몰래 들어간다. 어떻게든 엄마의 흔적을 찾고 싶어서다. 영란의 방에서 어렵게 발견한 공책. 그 안에는 '그분' '만월제'라고 꼭꼭 눌러쓴 글자와 난잡한 그림. 26/07/02 밑에 9999라는 숫자들까지 뭔가 이 섬에 관한 비밀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독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마침내 액자 뒤에 숨겨진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어릴 적 엄마와 젊은 영란이 함께 찍은 사진. 설마 냉기가 가득한 여인이 할머니라고?! 수리영은 방에서 찾은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엄마 -강민숙을 알면서 왜 모른 척 하는지 따져 묻지만 영란은 알 수 없는 표정만 지을 뿐 침묵으로 일관한다. '강민숙의 이름 석자를 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혹시 섬 어딘가에 엄마가 납치돼 있는 것은 아닐까.' 하루 종일 섬을 누볐지만 사람의 그림자도 마주치지 못한 수리영. 그때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다가오는 남자들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다. 어기적 거리는 걸음걸이하며, 수시로 흔들리는 눈동자. 게다가 굶주린 이리떼 마냥 수리영의 냄새를 탐닉하더니 도망치는 수리영을 쫓기 시작한다. 한바탕 몸싸움을 벌이며 위험에서 수리영을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인우였다. 하지만 인우 역시 섬을 떠나라는 말만 남기고 가버린다.

물로 떠나기로 결심한 그날 밤 어디선가 들리는 북소리. 둥!둥!둥!
어디서 몰려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벌이는 처벌 의식. 섬을 도망치려했다는 이유로 포박된

15살 소년의 이마에 시뻘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원을 그리며, 규칙을 어긴자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하며 의식을 주관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영란,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수리영은 그 녀앞에 나타난 영란에게 일갈한다. “당신이 엄마를 죽였지?”

3부 백발무당

악몽에서 깬 수리영이 영란을 밀치며 소리친다. "당신이 엄마를 죽였어!" 맨발로 달려 나간 수리영은 어젯밤 처벌 의식을 치른 해안가를 찾지만, 당산나무도 소년도 보이지 않는다. 또 환각을 본 것인가. 극심한 현기증과 구토. 섬을 떠날 생각에 달려간 선착장 그러나 이미 인우의 배는 저 멀리 물으로 가고 있었다. 결국 수리영은 선착장 위 작은 슬레이트 집 뒷마루에 그대로 쓰러진다.

한편, 항구 소도시는 최근 연속적으로 벌어진 살인사건에 신경이 곤두선 상태.

실종된 민숙에 이어 수리영까지 사라지자 혜수는 머리가 돌 지경이다. 게다가 살인사건에 대한 국과수 분석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인간의 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심지어 집단성마저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도 동물도 아닌 어떤 괴물집단이 사람들을 도륙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그 살인마 집단이 누구란 말인가?. 그때 후배 형사로부터 급한 전갈을 받는 혜수.

"포구에 여자 시신이 떠내려 왔는데 인상착의로 봐선 강민숙인 거 같습니다!!!"

현장에 달려가 시신의 손목을 들춰보는 혜수 ‘원’의 문신으로 봐선 틀림없는 민숙이다

거듭 수리영에게 연락을 취해보지만 여전히 신호가 끊긴 상태. 도대체 수리영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 시각, 식당에서 게걸스럽게 고기를 먹는 수리영. 채식주의자였던 수리영은 섬에 들어온 며칠 사이에 식성까지 변한 것인가. 수리영의 모습을 안타까운 얼굴로 바라보는 영란. 수리영은 진짜로 엄마 민숙을 죽였는지 묻는다. 한마디만 해주면 떠나겠노라 하면서. 그런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품을 물며 쓰러지는 수리영, 사지가 비틀리는 모습을 보면서 의미심장한 표정과 함께 절망에 빠지는 영란이다. 다급해진 영란은 황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만월이 되기 전에 수리영을 물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한다. 영란이 다녀간 날은 인우 아버지(황씨친구)의 제사가 있는 날. 황씨집에서 아버지의 제를 올리는 인우를 메다꽃는 산들, "인간하고 붙어먹은 잡종 놈의 제사를 왜 지내야 하는데!" 참지 못하는 인우와 산들 간의 격투가 벌어지고 영정을 들고 돌을 뜯어 말리는 황씨.

한편, 엄마에 대해 아는 것을 얘기해주겠노라며 수리영을 데리고 반월암 암자를 향하는 영란. 산등성이에 도착해보니 암자의 주인인 듯 백발무당이 수리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촛불을 들고 수리영 얼굴에 비추는 무당. 무당은 민숙이를 아는 것은 물론 수리영을 기다렸다고 말한다. 낯설고 기이한 무당은 ‘녹각목걸이’를 찾으라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암자에서 내려와 깎아지른 절벽에 도착한 수리영, 그녀가 제단 주변의 검게 변한 흙을 만지는 순간, <기괴한 동물 울음소리가 들리고 눈동자는 금빛으로 변한다. 매달린 채 버둥거리는 동물들, 피를 빨아들이는 인영, 만월의 달. 벼랑 끝에 선 여인>이 수리영으로 오버랩되며 낭떠러지를 향해 한 발자국 더 내딛으려는 순간, 누군가 수리영을 낭떠러지에서 끌어당긴다. 인우다.

4부 녹각 목걸이

회상, 갓 스물을 넘긴 민숙이 인간의 아이를 임신하자 영란은 닥쳐올 위험을 무릅쓰고 딸을 물으로 보낸다. 규칙을 어긴 죄로 자칫 민숙이 죽음에 내몰릴 수 있었던 상황. 그렇게 황씨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포구에 민숙을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인우의 배 안에서 20년 전 민숙의 애기를 전해들은 수리영. 이제야 영란이가 왜 민숙을 모른척했는지, 손녀인 수리영에게 지나칠 정도로 차갑게 대하여 물으로 떠나라했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 자신의 존재가 영란에게 위협일 뿐 아니라 발각되면 수리영도 화를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니 엄마는 한번도 자신의 과거를 말한 적이 없었다. 휘영청 달은 점점 만월에 가까워지고. 길게 누운 달빛이 조타실안의 은밀한 곳에 놓인 박스를 비춘다. 인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박스를 열어보는 수리영. 헉! 박스안의 핸드폰이 있다. 전원을 누르자 도시의 소식이 주르륵-. 강민숙의 시체 발견과 사라진 딸에 대한 기사. 심한 충격으로 창백해진 수리영, 갑자기 분노로 일그러지며, "엄마 죽인 거 혹시 너니?! 너만 물으로 오갈 수 있잖아?!" 절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이미 수리영은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다. "나도 너처럼 외지인이야!!!"

더 이상 원망할 곳을 찾지 못하고 오열하는 수리영.

그 시각, 만월제를 앞두고 금월도의 남자들은 동틀 무렵의 소도시를 살육하기 시작한다. 육지 변화가 골목에서 술 취한 남자의 목을 물어뜯고, 단란주점에선 여자를 납치하고, 동행한 남자를 죽여 생피를 마신다. 너덜너덜해진 팔과 다리, 시신이 담긴 드럼통을 바다에 버리며 의기양양하는 육혈귀들.

한편, 밤새 꼬박,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의 퍼즐을 맞춰보던 수리영, 영란에게 만월제에 참여하겠노라 뜬금포를 날린다. "제가 미끼였더라고요. 할머니를 제거할 미끼. 녹각목걸이를 찾아 엄마를 죽인 놈을 내가 먼저 죽일 거예요!" 수리영은 자신의 생일날 엄마가 녹각목걸이를 선물한 것을 기억한다. 무당 앞에서는 모른 척 했지만. 그리고 항상 지니고 있으라는 엄마의 당부에 따라 백팩 인형 안에 넣어뒀다. 그렇게 영란에게 말하고 백팩을 보는데, 고리만 달려있고 인형은 없다! 분명히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와 인형을 떼어간 것이다. 인형을 찾기 위해 헤매던 수리영은 해안가 외진 곳에 지어진 도축장을 발견한다. 쿼퀴한 피비린내를 견디며 캐비닛을 뒤지는데 한 귀통이에 인형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인형 안은 텅빈 상태였다. 그때 도축장으로 다가오는 낚시꾼의 신음소리와 낄낄거리는 펙! 펙! 몽둥이를 내려치는 소리. 도축장안 창고에 숨은 수리영은 작은 창을 통해 그들을 본다. 피를 핥고 살점을 뜯는 무리들. 그런데 수리영의 귀에 환청처럼 들리는 여인의 목소리. 시체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목을 축이라는... 기겁하며 뛰쳐 나오는데, 그만 주머니 속에 넣은 인형을 짓누른다. 익숙한 목소리 "왜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쳤어?" 다시 누른다.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민숙의 비명이 들린다. 분노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수리영.

5부 반인반혈

인형을 손에 들고 도축장을 빠져나온 수리영,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창백하다.

"그러게. 왜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쳤어?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컷전을 맴도는 산들의 목소리. 모든 게 분명해졌다. 촌주(영란)를 몰아내기 위해 엄마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수리영을 섬으로 유인한 놈은 '산들'이었다. 하긴 섬에 들어온 첫날부터 산들은 수리영을 염탐하고 수시로 나타나 자기 존재를 드러냈다.

한편, 도축장에서 부터 영란을 쫓아온 산들은 다음 촌주는 신이라는 말에 살기 등등한 기세로 반기를 들고 '촌주로 살아남고 싶으면 차라리 손녀(수리영)를 자신한테 넘기라고 협박한다. 영란에게 한 방 먹였다는 생각에 기분 좋아 혼자 킁킁거리며 어슬렁 집안으로 들어가는 산들. 자기 방으로 가려다 다시 황씨 방에 들어와 눈을 감고 있는 황 씨의 가슴팍 위에 칼을 겨눈다. 황 씨의 입술 끝이 살짝 떨리는 걸 본 산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진다. 칼은 황 씨가 베고 있는 베개 끝자락에 아슬아슬하게 내리꽂힌다. '아무 짓도 하지 마. 알았지-' 번쩍 눈을 뜬 황씨는 산들을 밀치고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나가면서 말한다. " 네가 누굴 죽였는지 안다... 그러니 그 애는 건드리지 마라. 날 밝으면 물으로 데려다줄 거다." 수리영을 물으로 데려간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그 애를 어떻게 데려왔는데...! 더는 망설이지 않고 황 씨를 뒤쫓아 몸을 잔인하게 도륙한다.

그 시각, 수리영은 황씨의 집을 찾고 있었다. 황씨는 엄마 민숙을 물으로 데려다 준 영란의 측근이다. 신이가 준 지도를 들고 골목 어귀에 들어선 순간, 어디선가 풍기는 피 냄새에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긴다. 마당에 피범벅이 된 채 누워있는 황 씨.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뒷걸음쳐 밖으로 나온 수리영. 곧이어 멀찍이서 통 하나를 끌고 온 산들이 황 씨 시신을 분절해 통에 담는 모습을 본다. 얼른 반대편으로 숨는 수리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산들. 다음 날 아침, 수리영은 부딪가에 멍한 얼굴로 서서 배 한 척을 바라보고 있다. 배 위에서 발견된 황 씨의 시체를 보며 경악한 얼굴로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의 눈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다. 하나같이 노기를 띤 채 외지인(수리영)을 바라본다. 인우 역시 마을 사람들과 코너에 몰린 수리영을 번갈아 쳐다본다. 허겁지겁 산을 오른 수리영이 향하는 곳은 반월암. 보이지 않게 그녀를 뒤따르는 인우. 암자에 가까와질수록 창과 칼이 부딪히는 환청이 점점 더 크게 들리면서 머리를 부여잡고 힘들어하는 수리영, 마침내 암자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무당이 없다. 대신 <둥! 둥! 둥! 북소리에 이끌리듯 어딘가로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제단에 서 있는 수리영. 컷가에 환청 같은 북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동시에 울려 퍼지는 동물 울음소리, 그 소리에 맞춰 솟구치는 피... 붉은 눈동자를 희번덕거리며 산들이 도축용 칼을 들이대며 수리영 몸을 만지고 흡혈을 위해 목에 이빨을 꽂으려한다. 온몸으로 거부하던 수리영은 비틀거리며 쓰러진다. (환영)>

쓰러진 수리영을 부드럽게 안아 암자 안으로 들어가는 남자, 인우다. 머릿결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수리영 가슴에 자기 손을 얹고 호흡을 맞추는 인우. 그렇게 손을 얹은 채로 수리영 옆에 눕는다. 환각상태지만 뭔가 따듯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는 수리영, 서서히 눈을 뜬다. 인우는 없고 수리영의 손에서 피를 뽑아 방울방울 그릇에 채우는 무당신씨. 동물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기괴한 형상들의 박제물이 암자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주문을 외우며 기도하던 무당신 씨는 수리영이 깬 것을 눈치채고 돌아서서 그릇에 담긴 피를 손으로 찍어 맛보고 음미한다. 뭔가 만족한 표정이다. 벌떡 일어나 신 씨를 밀쳐내고 '엄마를 죽이고 황 씨를 죽인 놈이 누군지 안다며, 인간이 아니죠? 이 섬사람들 대체 뭐예요?' 흥분하는 수리영에게 자신의 눈을 보라고 한다. <검은 눈동자 속에 활활 타오르며 나타나는 여인, 긴 녹각뿔을 들고 육혈귀 들을 제압하고 있다> "피와 고기를 갈망하는 자들이다.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왔던 육혈귀다" 무당의 눈동자에 펼쳐진 이미지를 통해 섬의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알게 된 수리영, '산들을 죽이려면 어

떻게 해야하는지 묻는데...' 그 단호한 눈빛을 물끄러미 보던 무당 신 씨는 내일 만 번째 달이 뜰 때 꼭 손에 녹각을 쥐고 있으라는 말을 남긴다. 수리영은 발걸음을 돌려 도축장으로 향한다.

머리 위로는 이제 거의 다 차오른 달이 떠 있다.

도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산들은 자신을 찾아온 수리영에게 문을 열어준다. 진한 피비린내도 이제 익숙한 탓일까 동요하지 않는 수리영. 웃음기 없는 얼굴로 묻는다.

“목걸이도 내가 가져갔지. 그건 엄마 거였다.”

그 말에 산들은 자신의 목에 걸린 녹각 목걸이를 끄집어내며 보여준다. 그리고 수리영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꺼내 먼지까지 털어주며, 지금부터 자신이 질문을 할 텐데, 마음에 드는 답변을 내놓으면 목걸이를 돌려주겠다고 말한다.

“엄마가 죽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 힘들었어? 아니면, 죽고 싶었어? 그것도 아니면... 피 냄새에 막 흥분되고 그랬어?”

빙글빙글 웃으며 묻는 산들. 하지만 산들을 보는 수리영의 표정은 동요가 없다.

근처에 굴러다니던 칼을 집어 자기 손을 훑 베어버린다. 떨어지는 피에 어쩔 줄 모르고 흥분하는 산들. 수리영이 손에 땀뭍 담긴 피를 보여주자 냉큼 다가와 열심히 핥는다. 수리영을 가지고 싶은 순간적 욕구가 산들의 전신을 바짝 긴장시킨다. 바로 그때! 산들의 목에 걸린 녹각 목걸이를 뺏는 수리영. “너에겐 쓸모없잖아!”

도축장을 나가다 한쪽 벽면에 숫자를 세어둔 듯, 벽에 그어진 기호들을 발견한다.

마지막 기호 아래에 9999라는 숫자의 의미를 확인한 수리영.

“8월 30일(음력 15일), 내일이 내 생일이네. 그날 보자.”

6부 만월제

만월제 전날. 얼굴을 씻으며 수리영은 거울을 본다. 목에 걸린 녹각이 차갑다.

갯가에 맴도는 무당 신씨의 목소리. "녹각이 빛을 발하는 순간 단번에 숨통을 끊어야 한다." 금월도는 생피와 생고기를 탐하는 육혈귀들의 섬이다. 자신도 엄마도 받은 육혈귀다. 인우의 이런 말도 떠오른다. "이 섬에서 혼혈은 우리 둘뿐이야."

거울 속 자신을 응시하던 수리영은 만월제를 앞두고 인우를 찾는다.

둘은 벽에 나란히 기대앉아있다. 인우가 슬며시 수리영의 손을 잡는다. 따뜻한 체온. 수리영이 묻는다. "왜 섬을 떠나지 않았어?" "널 만나려고 그랬나 보지." 피식 웃는 수리영. 인우가 같이 도망칠 건지 묻자, 수리영은 대답 대신 목걸이를 꺼낸다.

"만월 밤에만 이게 그놈을 죽일 수 있대. 죽일 거야."

폐가의 밤. 먼저 잠든 수리영의 머릿결을 어루만지던 인우. 무당 신 씨의 말이 떠오른다. 수리영이 산들을 죽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반인반혈의 피와 기운을 나눠주면 수리영은 상상을 초월한 힘을 발휘하지만 대신 상대는 죽을 수도 있다는 말.

인우가 잠든 수리영을 내려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맞춘다. 자기 손목을 이빨로 물어뜯어 피를 머금고 수리영의 입에 넣어준다. 길게 이어지는 키스. 인우의 피를 마신 수리영의 눈이 황금색으로 변한다. 온몸에 신열이 퍼지고 목이 확 꺾인다. 인우는 목을 수리영 쪽으로 내민다. 잠깐 망설이던 수리영. 인우의 목에 입술을 댄다. 흡혈. 둘의 호흡이 가빠지고, 한 몸이 된다. (امت)

금월도의 아침. 눈을 뜨는 인우. 죽지 않았다. 수리영을 내려다보니 평화로운 잠든 얼굴. 기운을 소진해 미소마저 힘겨워 보이는. 인우는 백팩 안에 수리영 핸드폰을 꺼내들고 조용히 집을 나온다. 이제 인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알거 같다.

세찬 바람. 해안가에 흔들리는 배. 도축장 안의 피 묻은 칼. 벽면에 적힌 D-Day. 얼굴을 희게 분칠하고, 시뻘건 입술에 검게 칠한 눈. 기괴한 물골의 영란이 흰 소복을 입고 거울 앞에 앉아있다. 반월암. 화려한 무복을 입은 무당 신 씨는 온몸을 떨며 알 수 없는 주문을 내뱉으며 치성을 드리는 중이다. 인우의 집을 나온 수리영은 홀로 섬 절벽 끝에 서있다. 감았던 눈을 뜨면 막 떠오르는 시작한 만월의 빛과 눈동자 색이 닮아있다. 늘 묶고 다니던 머리를 풀어헤친 수리영.

둥! 둥! 둥! 북소리.

구름 속에 가려져 있던 만월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내 마을 주민들은 육혈귀로서의 본능을 드러낸다. 이윽고 제사의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려 퍼진다. 금월도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만의 제사가 아닌 ‘그분’(신)을 영접하기 위한 제사를 시작한다.

산 중턱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제단, 흰히 커진 햇불 아래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다들 얼굴은 서로를 알 수 없게 입만 남기고 화려하게 화장하고, 남자들은 흰 바지에 온몸을 흰색으로 분칠했다. 제단 위 한가운데 무당과 영란이 위엄 있게 하늘의 축복을 비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

북과 징소리가 점점 커지고 절정에 달아오르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펙!(살아있는 동물의 명줄을 끊는 소리, 보이지 않음) 소리를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이 함성을 지른다. 피가 수로를 따라 흐르면 마구잡이로 달려드는 마을 사람들, 생피를 나눠 마시며 ‘그분이 오신다.’고 외친다. 제단 위에 오른 수리영 앞에서 육혈귀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는다. 무당 신 씨가 선언한다. "그분이시다!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순간, 제단에 도축용 칼이 날아와 꽂힌다. 산들이다. 그는 산 제물로 끌고 온 여인들과 낚시꾼 시신을 내던지며 외친다. "모두 거짓이다! 촌주와 무당 년이 우릴 속여왔다!" 인혈에 굶주린 육혈귀들의 본능을 깨웠고 있는 산들. 칼을 휘둘러 무당 신 씨를 두 동강 내고, 제물들을 죽이자 피가 사방으로 튀어 오른다. 육혈귀들이 피 냄새에 이성을 잃고 달려든다. 광란의 현장.

“오늘 만월제는 이들의 피로 생명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맘껏 즐겨라! 앞으로 우리는 물으로 나갈 것이다. 우리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영란이 산들에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으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다.

"이게 정녕 당신 뜻입니까?" 수리영을 향해 마지막으로 미소 짓는 영란. 그리고 칼을 들어 스스로 목을 찌른다. 영란의 희생. 그 순간 수리영의 눈이 완전한 황금빛으로 타오른다. 수리영의 몸에서 ‘그분’이 완전히 깨어난 것. 녹각목걸이를 꺼낸 수리영이 만월을 향해 천천히 비추자, 그 빛에 일순 눈이 부셔 잠잠해지는 육혈귀들. 수리영, 노기 띤 얼굴로 산들을 바라보더니 하늘로 봉 떠올라 절벽 위에 선다. 도축용 칼을 들고 절벽 끝에 선 수리영을 향해 달려가는 산들, 수리영이 사라지자 거센 바람이 불고 육혈귀들은 갑자기 초점을 잃고, 세찬바람에 폭폭 쓰러진다.

한편 벼랑 끝. 자신의 목덜미를 노리는 산들의 칼날을 가뿐히 피하는 수리영이다. 마치 그녀의 몸에 다른 영이 들어온 듯, 날렵하게 잘 싸운다. 여러 차례 일합을 거루지만, 수리영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진다. 산들이 휘두르는 칼을 가볍게 피하며 일갈하는 수리영.

수리영의 목소리가 아닌 그 누군가의 목소리로.“너는 파멸의 씨앗으로 잉태된 아이다.”

그 말에 더욱 이성을 잃고 달려드는 산들. 수리영은 목에 걸려있던 흰 녹각 목걸이를 툭 끊어내 손에 쥔다. 녹각은 날카로운 창이 되고 칼로 변한다. 산들의 한쪽 눈에 찔러 넣자, 포효하는 산들. 새빨강게 빛나던 산들의 눈이 피가 흐르기 시작한다. 시야를 잃고 움직이지 못하는 산들을 보는 수리영.

산들이 미친 듯이 휘두르는 공격을 받아내며 이번엔 정확히 목덜미와 심장을 노린다. 툭 무너지는 산들.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만다.(암전)

동틀 무렵. 의식 없는 수리영을 품에 안고 서글픈 얼굴로 바라보는 인우, 수리영의 뺨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 댄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아침 해가 떠오르는 해안가, 해변에 덩그러니 홀로 누워있는 수리영.

송전탑 부근의 모든 섬을 샅샅이 뒤지던 혜수, 수리영을 발견하고 배에 태운다. 서서히 출항한 배는 아침 해를 배경으로 소실점이 되어 사라진다. 절벽 위에서 멀어져가는 배를 바라보는 인우, 그리고 반인반혈 아이들.(암전)

다시 옥탑방, 수리영의 집. 정갈하게 차려입고 외출을 나서는 수리영. 홀로 거울을 보고 있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눈동자를 자세히 살펴본다.

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눈동자를...

----- **The End**